

현대 패션에 나타난 부피 확장에 대한 연구

최 수 현

영진전문대 패션디자인전공 겸임교수

A Study on the Expansion of Contemporary Fashion

Soo-Hyun Choi

Assistant Professor, Fashion Design Course, Yeungjin College

(2007. 1. 12 투고)

ABSTRACT

Exaggerated expressions of contemporary fashion have exceeded historical precedents in volu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expanded form in contemporary fashion.

To take dresses beyond their flat shapes into three-dimensional forms, it was investigated into volume of dresses by using the void and the mass. The void is rarefied space and the mass is densified space. The void of dresses could be constructed from the boning such as panier and stiff textiles as organza lining. The mass could be constructed from padding. Fold, pleats, twist, and the layering of fabrics show features of both the void and the mass.

Contemporary fashion designers relied on the void rather than the mass to make the enormous volume because of the weight of the mass. X-silhouette and the expansion of skirt and sleeve were dominant as the result of accentuating the body with a waistline. However, many of expanded dresses were so voluminous that they obscured the body's outlines. Some forms were strange and shocking. Many designers explored the void and there were a multitude of methods to construct the void: compartments of air, architectural techniques, technical textiles, fold such as origami.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expanded dresses could b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the giant, the dynamic, the deconstructive, the historical, the comedic, the rhythmical, and the technical character.

Key words: expanded form of dress(확장된 복식), volume(부피), void(보이드), mass(매스)

I. 서론

서양복식사에는 인체보다 과장된 부피를 갖는 확장된 복식의 예들이 많이 있었다. 17세기 중엽 양옆으로 퍼지는 드레스를 입은 여인은 옆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문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성과 논리의 지배를 받는 20세기 모더니즘의 도래와 함께 복식은 커다란 부피 그리고 부분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잃게 되었다. 1910년대 벨에포그 시기와 Dior나 Balenciaga와 같은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외하고, 20세기의 70여 년 간에는 크기의 과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다. 미를 자연적인 이상의 순수미로만 파악했던 모더니즘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따르는 복식만을 아름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과장과 극단이 중요성을 띄게 되면서 최근 패션에서는 거대한 부피를 갖는 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말 스펙터클한 패션쇼에서는 거대한 작품들이 극적인 효과를 연출했고, 과장과 극단을 신체와 복식으로 가시화 시킨 전시회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열린 "Extreme Beauty"에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많은 패션의 예들을 보여주었다.¹⁾ John Galliano의 가운은 18세기 파니에 드레스보다 더 넓고 19세기 크리놀린 스커트보다 더 길며, Alexander McQueen의 하이힐은 16세기 쇼핀보다 훨씬 더 높다. 1990년대 이후의 거대한 패션은 그 역사적 선례들을 훨씬 능가하여 극단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극단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복식의 부피 확장 현상을 살펴보고 그 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한다. 복식은 3차원의 입체적 조형물이므로 거대한 복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길이와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3차원의 부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피는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므로 복식의 부피 확장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복식의 형태를 공간개념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장에란²⁾은 건축양식의 형태미를 복식에 도입

하는 과정에서 복식의 부피성을 매스(mass)와 볼륨(volume)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매스와 볼륨을 이루어내는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한 연구나 최근 패션의 부피성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의 성격, 공간 확장방식 등을 통해 부피 확장된 현대 패션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의 성격을 내재한 부피 개념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복식의 부피 확장 방식의 틀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확장 방식의 틀을 적용하여 자연적인 인체의 형태보다 과장된 부피를 갖는 패션 작품의 형식미를 분석한다. 셋째, 부피 확장에 내재된 내적 의미를 분석하여 미적 가치와 미적 범주를 추출한다. 연구범위는 과장된 부피의 패션 작품이 많이 나타난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패션을 대상으로 하였다. 극단적인 형태의 복식은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감각이 돋보이는 컬렉션 의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의상으로 제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부피, 공간과 형태에 대한 일반적 개념

부피(volume)는 입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로 체적이라고도 하는데, 조형예술에서는 시각이 촉각이나 운동감각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양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공간과 형태는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개념으로 공간은 형태를 지각하는데 필요한 거리를 만들어내며 형태 없이는 지각할 수도 없다. Davis³⁾는 복식의 형태와 공간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크기, 밀도, 오목과 볼록, 압력 등을 제시했다. Joedicke⁴⁾은 건축의 공간은 형태, 표면성질, 조명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 이때 형태는 편평성과 입체성, 오목과 볼록, 밀도, 방향 강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표면성질이란 색채와 재질감을 의미한다. 즉 입체의 부피 지각에는 선, 색채, 재질의

디자인 요소가 모두 관여하며 특히 공간개념으로 파악하면서 지금까지 형태개념에서 간과되어 왔던 공간의 밀도문제가 대두된다.

Joedicke⁵⁾은 공간을 여러 가지 점들 사이 관계의 총합이라고 정의하면서 공간을 결정하는 점들 사이의 간격이 적으면 공간밀도가 높고, 간격이 크면 공간밀도가 낮은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현대 후기 구조미학에서 형태를 파악하는 중요 개념인 보이드(void)의 개념이 유추된다. 보이드는 밀도가 낮은 즉 희박한 공간을 솔리드(solid)는 밀도가 높은 즉 뻘뻘한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빈 공간에 대립하는 실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매스(mass)가 솔리드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면, 복식의 확장된 부피의 공간적 성격에도 이러한 보이드와 매스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후기구조주의 담론에서 문화와 의미간의 간극(gap)을 설명하는 해체(deconstruction), 개조(reconstruction), 비구조(unconstruction)는 근본적으로 공간적 개념들로서 미학과 형태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⁶⁾ 공간과 구조(construction)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분석적 시각이 건축분야를 넘어 최근에는 패션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복식의 공간 구성에 보이드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보이드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형태의 근본구조를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패션의 공간에 대한 탐구를 표면을 넘어 그것이 포함하는 보이드와 매스로 이동하는 것은 의복의 형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복과 신체 사이의 공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일반적인 의복은 신체와 거의 일치하는 윤곽선을 만들며 적은 양의 공간을 형성한다. 즉 의복은 밀단, 칼라, 커프스에서 안으로 집혀 착용자가 볼 수 없는 내부영역에 공간의 잔여분으로써의 보이드를 형성한다. 그러나 페티코트, 패드, 버팀대(boning) 등을 가진 의복은 신체와의 사이에 많은 공간을 형성하거나 또는 신체의 형태를 과장되게 왜곡시킨다. 반면에 Lycra, Tactel, latex와 같이 신축성 있는 직

물로 된 의복은 신체에 밀착함으로써 보이드의 공간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화한다. 의복에서의 공간은 의복과 신체 사이의 공간 뿐 아니라 의복의 부분들 사이의 공간 개념도 포함 할 수 있다. 플리츠, 개더, 러플, 카울 등은 의복 위에 공간을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의복은 정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인체에 착용되므로 특히 부드러운 소재로 된 의복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을 형성한다.

면으로 둘러싸인 3차원의 영역인 형태(form)의 종류로는 구(sphere), 정육면체(cube), 원통형(cylinder), 원뿔형(cone), 피라미드형(pyramid), 직육면체(box), 종형(bell), 돔형(dome), 배럴형(barrel), 아우어글래스형(hourglass), 트럼펫형(trumpet) 등이 있다. 그런데 복식의 형태는 물질로서의 복식이 인체에 착용되어진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피 확장을 논하기 위한 복식의 형태는 인체의 형식과 복식 자체의 형식이라는 두 가지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다. 인체에 착용되어진 복식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인체의 허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윤곽선을 의미하는 실루엣 개념으로 많이 파악되어왔다. 그 종류로는 스트레이트 실루엣(straight silhouette), 배럴 실루엣(barrel silhouette), 텐트 실루엣(tent silhouette), X-실루엣(X-silhouette), 버슬 실루엣(bustle silhouette) 등이 있다.

그런데 복식의 부피 확장은 복식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인체는 주로 동체부를 중심으로 머리와 사지부를 분리시키는데서 시작하므로 인체를 머리, 목, 동체부, 팔, 다리로 구분하고 각 부위에 해당하는 의복의 구성 부분인 칼라, 소매, 스커트 등의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식 부피 확장의 부위를 목에 해당하는 칼라 부분, 소매와 어깨 부분, 몸통 부분, 다리위에 부피를 형성하는 스커트 부분, 몸통과 다리를 함께 강조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2. 복식의 부피 확장 방법

패션은 직물의 평면성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대적 이상미에 부합하는 인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부피 형성에 의존해 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피 확장에 의해 형성되는 복식의 공간은 보이드와 매스로 파악할 수 있는데, 평면적인 직물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우선 보이드를 형성해 부피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거대 부피 형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물질로써 직물이 갖는 무게는 중력의 작용해 의해 인체의 윤곽선을 따라 약간의 보이드를 형성하고 남는 여분의 직물은 수직으로 떨어지며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자연스러운 보이드를 형성한다. 인체의 면적 보다 월등히 큰 면적을 갖는 의복은 이러한 방식의 부피 확장을 이루어낸다. 14세기부터 시작된 스커트의 부피 확장은 스커트의 면적 확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스커트에 보다 큰 부피를 주기 위해 안에 겹 스커트인 페티코트를 받쳐 입게 되었다. 더 나아가 페티코트 대신 고래뼈, 등나무, 철사 등으로 만든 스커트 버팀대를 이용해 더 가벼운 무게로 더 큰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크리놀린으로 대표되는 버팀대를 이용한 스커트의 부피확장은 착용자 둘레에 보이드를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일 것이다. 버팀대를 이용한 복식의 부피 확장은 스커트 뿐 아니라 소매의 부피확장에도 이용되었다.

별도의 버팀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오간자와 같이 형태안정성 있는 직물로 의복을 구성하거나 또는 의복의 내부에 라이닝으로 사용해 보이드를 유지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뻣뻣한 직물의 한계를 넘어 신체에 독립적인 형태를 형성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압축과 확장으로 오목과 볼록의 모양을 만들어내면서도 착용자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산업용 폼이나 열처리와 화학처리에 의해 의복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Nitinol 같은 열안정화 소재 등은 거대한 버팀대 없이도 과장적인 부피형성을 가능케 했다.

버팀대나 형태안정성 있는 소재가 신체와 의복 사이에 보이드를 형성한다면, 1960년대 space-age 패션에서 공기를 주입해 부풀리는 의복은 의복 자체 내에 보이드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최근 Michiko Koshino, Yohji Yamamoto 등은 공기로 가득한 보이드의 이러한 표현을 21세기로 업데이트 시켜 의복의 실루엣을 재정의 하는데 사용했다.

버팀대가 빈 공간인 보이드로 부피를 형성하는데 반해, 르네상스시대부터 사용되어온 패드는 채워진 부피인 매스로 부피를 형성한다. 패드는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커트와 같이 커다란 부피 확장 보다는 주로 시대의 이상적 인체미에 따라 어깨나 소매 부위의 부피 확장에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20세기말 Rei Kawakubo는 오리털이나 등근 폼을 채운 패딩을 이용해 전혀 예기치 못한 등이나 배 등의 부위에 부피를 형성하는 복식 공간에 대한 독특한 접근법을 보여주었다. Hussein Chalayan은 드레스의 목 뒤에 비행기 목받침대 같은 형태의 패드를 부착해 인간공학적인 인상을 풍기는 매스를 형성하기도 했다.

풀 먹인 리넨을 겹쳐 만든 페티코트는 스커트 내부에 버팀대에 의한 보이드와는 달리 비어있지 않은 공간을 형성한다. 그런데 그 공간은 패드처럼 밀도 높은 매스가 아니라 직물과 직물 사이에 적은 양의 보이드를 포함하여 여러 층의 보이드와 직물 부피가 합하여져 부피가 확장된 것이다. 직물의 레이어드는 속옷 뿐 아니라 의복의 부피 확장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히, 198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이 서양의 전통적인 인체 의존적 복식의 형태를 거부하고 여러 겹을 겹쳐 입어 커다란 부피를 형성하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주목 받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 러프칼라는 자연스러운 러플에 의한 부피를 더욱 강화해 인위적으로 많은 폴드(fold)를 유지하여 부피를 확장시킨 것이다. 폴드는 직물의 표면 영역을 보다 컴팩트한 형태로 압축시키는 구조이다. 반복되는 폴드 사이의 파인 곳에는 명백히 보이드가 존재하며 이러한 보이드가 합쳐져 커다란 부피를 형성하면서도 압축되어있는 직물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으므로 인체의 움직임을 자

유롭게 한다. 직물의 표면을 나누는 동시에 합하기도 하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굽히기도 하면서 직물의 외형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동시에 인체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흐르는 폴드의 성격은 후기구조주의 이론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Deleuze는 구조, 보이드, 분할과 장식을 정제화하고 표현하는 표면의 관계적 의미를 해석하는 모델로 폴드를 적용함으로써 형태와 공간의 열린 구조 관계를 설명했다.⁷⁾

폴드에 훨씬 더 복잡한 공간적 정렬을 재현함으로써 그 부피확장 효과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재현한 것은 폴드가 오리가미(origami)라는 예술 형태로 전승되어 온 일본의 디자이너들에 의해서이다. 특히 Junya Watanabe의 오리가미 드레스의 honeycomb weave는 유기체 모양과 코일의 형태로 밀도 있는 나선형을 허용함으로써 보이드에 상반되는 성격의 밀도 감각을 주어 '보이드에 의한 매스의 형성'이라는 부피 확장 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긴 가벼운 중량감은 의복을 아래로 무게지어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물결치듯이 부드럽게 흔들리면서도 깃털처럼 가볍게 보이는 부피를 형성했다.

이집트 시대부터 패션에 활용되어온 플리츠는 폴드의 종류이지만 다른 성격의 표면을 형성하는데, 폴드되어 상침되거나 재봉선에 고정되어 오목과 볼록이 있는 표면을 형성한다. 플리츠 자체가 포함하는 보이드의 양은 크지 않지만, 플리츠로 인해 직물에 형체 안정성이 생기므로써 플리츠 있는 직물로 만든 의복은 인체와의 사이에 보이드를 포함한 부피확장의 효과를 갖고 온다. Issey Miyake는 플리츠를 활용하여 인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을 강조하고 활용한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3차원적으로 굴곡되고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는 트위스트(twist)도 폴드의 일종이다. Vionet의 바이어스 재단은 인체 둘레를 사선으로 감아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물의 수직과 수평축으로부터 의복을 해방시켰고, Watanabe는 보다 불규칙적인 형태로 인체 둘레에 직물을 트위스트 시키고 이를 코일 등으로 고정시켜 새로운 의복의 형태를 창조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방법들은 인체 둘레에 입체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복식의 부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었다. 그런데 2차원적인 복식 길이의 연장은 이를 착용한 인체에 대한 인식을 연장시킴으로써 입체적인 부피 확장의 효과를 준다. 나폴레옹시대 엠파이 어 드레스에 달렸던 8-9m 길이의 트레인 뿐 아니라 현대 웨딩드레스의 먼사포와 트레인은 확장된 부피로 인식될 수 있다. 1999년 S/S 컬렉션에서 Miyake가 선보인 하나로 연결된 붉은색 드레스는 복식으로 가능한 공간의 연장을 극단적으로 과장해 놓은 예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부피 확장은 실제적인 공간에 기반 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깊이와 거리의 착시에 의해서도 공간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제한된 부피의 의복 표면에 깊이의 착시를 유도하는 디자인 요소를 배치한다면 의복의 실제 부피보다 확장된 영역을 체험하게 된다. Kawakubo는 붉은색과 검은색의 옵티컬 패턴을 활용해 직물의 수직적인 표면에 새로운 공간적 형태를 창조했고, Chalayan은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양귀비꽃 패턴으로 깊이의 환영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복식의 부피는 버팀대나 형체안정성 소재 또는 공기를 주입하여 보이드의 공간을 형성하거나 패드 등을 활용하여 매스의 공간을 형성하는 방법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 직물의 레이어드나 폴드, 플리츠, 트위스트 등은 보이드의 성격과 매스의 성격을 함께 갖는 공간을 형성한다. 그리고 2차원적인 길이의 연장도 부피 확장의 효과를 줄 수 있으며, 그 외 시각적인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부피 확장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Ⅲ. 현대 패션에 나타난 부피 확장 분석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부위별 부피 확장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복식 부피 확장의 부위를 목에 해당하는 칼라 부분, 소매와 어깨 부분, 몸통 부분, 다리 위에 부피를 형성하는 스커트 부분, 몸통과 다리를 함께 강조하는 경우로 분석하였다.

1) 칼라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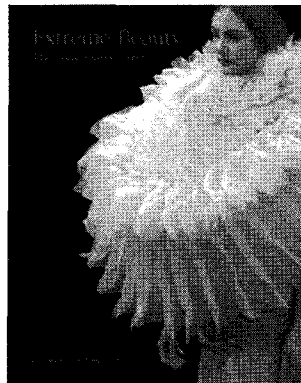
복식의 목 부위 부피 과장의 대표적인 예는 16세기 러프(ruff) 칼라이다. 안에 입었던 스모크(smock)의 블랙워크(blackwork) 자수가 많은 주름에 분리장착시키는 형태로 발전된 러프 칼라는 목둘레에 원형으로 과장된 부피를 형성했다. 어깨 넓이까지 확장된 러프 칼라는 신체와 머리를 분리시키고 머리가 떠있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거대한 러프 칼라를 착용하면 고개를 움직일 수 없어 당시에는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특권계급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머리 뒤로 뺀친 위스크(whisk) 칼라나 어깨를 레이스로 내려덮는 폴링(falling) 칼라의 형태로 계승되었는데, 이러한 칼라의 부피과장은 지속적으로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제공해왔다.

1998년 Givenchy 컬렉션에서 McQueen은 레이스로 된 폴링 칼라를 선보였는데 17세기의 것 보다 목에서 어깨에 이르는 삼각형을 더 뾰족하게 과장함으로써 목의 길이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주름으로 거대한 부피를 형성했던 16세기 러프 칼라는 Watanabe의 2000년 F/W 컬렉션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과장되었다. 그는 일본의 전통적 공예기술인 오리가미 기법을 응용하여 honeycomb weave의 독특한 폴드로 부피를 과장한 의상들을 선보였다. 특히 16세기의 러프 칼라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훨씬 더 과장해 몸통둘레까지 연장된 원통형의 부피를 형성한 작품은 칼라부분에 형성된 부피 확장의 극단적인 예가 되었다.<그림 1>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의 러프 칼라가 폴 먹인 천으로 딱딱한 부피를 형성했던데 반해, Watanabe의 러프 칼라는 가벼운 소재를 이용하고 폴드 사이에 보이드를 많이 포함하여 가볍게 물결치는 듯한 이미지를 준다. 이러한 이미지의 차이는 르네상스 시대 러프 칼라의 부피 확대가 권위의 상징과 관련되었던 것과는 달리 현대패션의 부피 확대가 미적 차원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한편 Watanabe는 1998년 F/W 컬렉션에서는 가벼운 오리가미와는 달리 무게감 있는 모직물에 아코디언 플리츠를 잡아 목둘레에 팬(fan) 형태의 부피를 형성하고, 플리츠를 고정하기 위해 그 위에 철

사를 코일 형태로 얼굴 위까지 감아올린 의상을 선보였다. 이렇게 형성된 부피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보이드를 많이 포함하지만 재질 자체의 특성에 의해 오리가미 의상 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Quinn⁸⁾은 Watanabe의 이러한 의복 구성 방식을 비구조(unconstruction)로 조각적이고 건축적인 형태를 창조한다고 평가했다. 철사를 이용한 목의 부피 확대는 1989년 F/W Dior 컬렉션에도 나타났다. Galliano는 직선적이지만 인위적으로 휘어진 철사로 레인코트의 커다란 칼라를 목 위로 연장해 부피를 형성함으로써 망가진 우산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목 부위의 부피 형성이 주로 보이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피인데 반해, Chalayan은 1999년 F/W 컬렉션에서 매스로 인식되는 패드를 목에 부착한 시스(sheath) 드레스를 선보였다.<그림 2> 둥근 삼각형의 패드는 어깨 각도에 과장적인 삼각형의 라인을 형성했다. Evans⁹⁾는 자동차 내부 디자인과 인간 공학적 설계를 참조하여 만들어진 이 의상이 속도에 대한 신체의 자연적인 가능성과 기술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 지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편, McQueen은 1996년 F/W 컬렉션에서 라펠이 위로 세워져 얼굴을 가릴 정도로 과장된 재킷을 선보였다. 총재정부시대 앵크루아야블(Incroyables)의 하이 칼라처럼 얼굴의 일부를 가리고 가슴까지 깊게 형성된 V라인이 길이 연장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1> Watanabe,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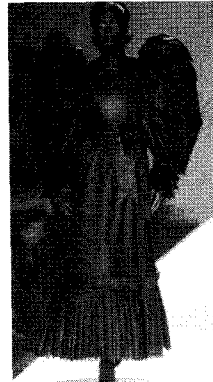
<그림 2> Chalayan, 1999

2) 소매와 어깨 부분

복식의 특정 부위의 부피 과장은 다른 부위들의 형태 변화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는데 복식사에서 소매의 확장은 주로 넓은 스커트와 함께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수단이어 왔다. 가는 허리를 강조했던 낭만주의 시대의 레그오브머튼(leg-of-mutton) 슬리브와 19세기말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드레스의 지고(gigot) 슬리브는 소매 버팀대나 거대한 패드를 이용해 부피를 과장한 예이다. 이 스타일에서 거대한 소매는 강력한 힘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가는 허리의 강조와 함께 여성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Viktor & Rolf는 2001년 F/W 컬렉션에서 거대한 퍼프 슬리브를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하는 검은색 드레스의 여인에 적용함으로써 소매의 부피 확대에 위축을 유도하는 힘의 차원을 결합시켰다. <그림 3> 소매와 어깨의 영역을 확대한 검은 퍼프 슬리브의 공간은 패드 위에 개더로 공간을 완성한 윗부분과 상부의 부피 지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이드의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아랫부분이 미묘하게 달리 인지된다. 검은색이 주는 무게감은 모델의 메이크업까지 연장되어 더욱 강한 이미지를 형성했고 허리에선 과장된 검은색 단추는 과장된 소매와 조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배럴형태 외에 소매는 주로 타이의 민속의상과 같이 위로 높이 솟은 형태로 과장된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평범한 재킷의 어깨 부위를 뾰족한 피라미드 형태로 과장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특히 Jeremy Scott은 1998년 F/W 컬렉션에서 타이트한 드레스와 위로 뾰족하게 과장된 퍼프 슬리브의 검은색 볼레로로 성적이고 극적인 이미지를 선보였다.

<그림 4>는 Yoshiki Hishinuma 2001년 F/W 컬렉션의 작품으로 어깨의 과장은 높이나 소매 자체의 부피 과장 보다는 몸통을 둘러싼 원형의 튜브를 연상시킨다. 목 주변의 패딩된 칼라와 어깨의 두 줄의 패드는 모두 배스로 인식되며 유사한 형태의 반복 리듬을 형성한다. 형태안정성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극소의 재봉선 만으로도 둥근 도움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스커트의 공간은 상체의 패드로 형성된 부피를 더욱 과장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Viktor & Rolf, 2001



<그림 4> Hishinuma, 2001

3) 몸통 부분

몸통 부위의 부피 확장은 소매나 어깨부위와 따로 떼어내기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부피 확장이 소매나 어깨부위에만 제한되지 않고 몸통을 완전히 감싸는 부피를 형성하는 작품을 몸통 부분의 부피 확장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부피 확장은 이상적인 인체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가는 허리를 포함하는 몸통 부분에는 거대한 부피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패션에서는 몸통 부분에 예기치 못했던 부피를 형성하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5>는 Arkadius의 작품으로 그는 전통적인 복식에서 사용되던 부피 과장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피를 과장해 인체 위에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왔다. 이 작품에서 부피의 과장은 마치 건축가가 사용하는 골조의 원리와 같이 지지대로 보이드를 형성하고 형태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그는 딱딱한 원뿔형의 거대한 금속 틀을 상체 위에 씌워 마돈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작품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Kawakubo는 의복과 신체, 직물과 피부 사이의 경계를 없애기 위해 의복 공간에 대한 인식을 극대화시킨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이를 강조하는 공간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서양패션의 시스템과 달리 Kawakubo는 의복의 부피를 물리적인 공간 자체로 또는 은유적

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응시하였다. 특히 1997년 S/S Comme des Garçons 컬렉션에서는 신체 주변의 공간을 패스로 번역하여 오리털이나 폼(foam)을 채워 넣은 패드로 몸통 둘레를 감싼 긴 소시지 모양의 부피를 형성하거나, 등에 둥근 언덕 모양의 혹을 만들고 이러한 모양을 배 부분에 복사하기도 하면서 인체의 형태를 왜곡시켰다. <그림 6> 그녀가 의복에 창조한 패스는 착용자를 압도하는 밀도 감각을 지닌 것으로, Watanabe의 가벼운 밀도감의 오리가미와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이 컬렉션 의상들은 Merce Cunningham의 댄스에 사용되었는데 무대위를 나선으로 힘차게 도는 댄서들의 동작에 의해서 가구에 천을 씌우는 것처럼 회전에 천을 씌운 듯한 인상을 만들어 냈다.¹⁰⁾ 또한 Kawakubo는 검



<그림 5> Arkadius



<그림 6> Kawakubo, 1997



<그림 7> Theyskens, 1999

은색이나 붉은색으로 된 체크패턴을 착시를 위한 도구로 즐겨 사용하였는데, <그림 6>에서와 같이 패드에 의해 왜곡된 형태는 옵티컬 패턴에 의해 그 거리 관계가 더욱 혼란스럽게 변화되었다.

Olivier Theyskens가 1999년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그림 7>은 일본 전통 오비(obi)를 극단적으로 연장해 허리뿐 아니라 토르소 전체에 거대한 폴드를 형성하면서 불규칙하게 둘러 부피를 형성한 작품이다. 이 디자인의 공간 구성 방식과 형태는 부피에 의존하는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던 Christobal Balenciaga의 1967년 작품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Balenciaga는 부드러운 실크를 바이어스 튜브로 만들어 꽃잎과 같은 폴드를 만들었던데 반해, Theyskens는 직선재단의 형체안정성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 Balenciaga는 최소한의 구조적 노력으로 건축적 부피의 효과를 얻는데 탁월했던 디자이너로 오간자 라이닝과 공기를 이용해 거대한 부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작품들을 많이 선보였다.

4) 몸통과 스커트

허리를 인식하는 복식은 몸통과 스커트를 분리하여 강조하지만 허리가 인식되지 않는 형태에서는 몸통과 스커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부피를 형성한다. 가는 허리를 강조하지 않고 스커트를 크게 부풀린 텐트 실루엣은 평면적으로는 삼각형의 실루엣이지만 3차원적으로는 원형으로 회전시킨 형태이며, 크리놀린 스커트의 허리가 가슴 위로 이동한 것처럼 보여 몸통이 생략된 여성의 신체를 연상시킨다. McQueen은 1999년 S/S 컬렉션의 피날레에서 기계분사장치로 물감을 분사시켜 문양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의복의 형태가 확정적이지 않고 우연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때 사용된 드레스는 가슴 위에 거대한 가죽 벨트로 고정시킨 텐트 실루엣으로 회전하는 동작과 함께 토르소 없는 인체를 연출함으로써 불확정적인 의복의 형태를 강조했다. 이러한 텐트 실루엣을 발전시켜 2001년 S/S 컬렉션에서는 착용자로부터 1m 거리에 이를 정도로 과장된 드레스를 선보였다. <그림 8> 이 드레스의 표면은 깃털로 밀도

있게 뒤덮혀 일반적인 보이드와는 다른 매스의 느낌과 함께 인체로부터 분리되는 조각적인 인상을 형성한다. 2000년 F/W 컬렉션에서 Martin Margiela가 선보인 텐트 실루엣의 셔츠와 베스트는 오버사이즈 티셔츠처럼 의복의 비례를 무너뜨린 확대가 아니라 표준 패턴을 148% 확대한 것으로 신체를 축으로 한 의복의 비례적 확대를 언급했다.

최근 패션디자이너들은 인체 실루엣을 진화하는 blob¹¹⁾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blob 형태로 의복을 디자인하는 것은 인체 형태에 가까워지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blob 형태에서 시작되어 전개된 디자인들은 대부분 그 부피가 과장되거나 표면이 독립적인 면으로 장식됨으로써 원래의 영감과는 다르게 인체의 형태와는 다른 극단적 형태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Chalayan이 2000년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튜(tule) 드레스도 blob의 형태에서 시작되었으나 목을 인식하지 않고 몸통에서 머리로 연장되면서 신체의 형태를 왜곡시켰다. <그림 9> 이 부피 형성법은 매스와 보이드를 조각적 차원에서 연구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모델의 팔, 다리, 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하면서도 밀도 높은 실루엣을 창조하기 위해 신체 둘레에 튜를 조각했다. 이 방법은 Watanabe의 오리가미 기법처럼 근본적으로는 보이드에 근거하면서도 훨씬 더 매스에 가까운 부피를 형성한다.

blob의 형태는 더욱 과장되어 벌룬 실루엣(balloon silhouette)을 형성하는 구형 의상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Miyake의 원형 의상이 평면적 상태에서는 원형이지만 인체에 착용된 상태에서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었던데 반해, 텍스타일 아티스트 Maria Blaisse가 1996년 발표한 'Black Circle' 의상은 신체 둘레에 완전한 구형을 형성했다. 압축과 확장으로 오목과 볼록을 형성하는 산업용 폼을 이용해 착용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신체로부터 독립적인 형태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소재의 발전과 열처리, 화학처리 등으로 직물의 형태를 고정화시키는 신기술의 발전은 별도의 버팀대 없이 거대한 보이드를 유지하는 의복의 형태를 가능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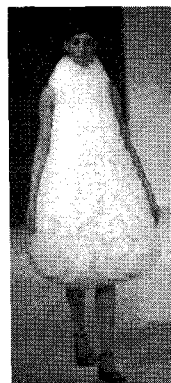
허리를 인식하지 않은 전체적인 부피과장은 텐트

실루엣이나 blob 외에 도움형이나 거대한 박스형으로도 나타났다. 1997년 F/W Givenchy 컬렉션에서 McQueen이 선보인 의상<그림 10>은 아프리카의 짚으로 된 스커트를 차용해 어깨에서 높이 솟아 몸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도움 형태의 부피를 형성했다. 짚이나 깃털 등에 의한 부피는 패드처럼 닫힌 공간은 아니지만 매스의 성격인 밀도를 띠고 있다. 목의 길이를 연장하는 금속 목걸이와 깃털로 높이 솟은 머리 장식은 신체 둘레의 과장된 부피를 더욱 강조해 준다.

몸통과 스커트의 부피를 동시에 확대시키면서도 허리를 인식하는 경우 전통적인 X-실루엣이 형성된다. 그런데 최근 패션쇼에는 가는 허리의 여성스러



<그림 8> McQueen, 2001



<그림 9> Chalayan, 2000



<그림 10> McQueen, 1997



<그림 11> Galliano, 2001

움 강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X-실루엣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11>은 2001년 F/W Dior 컬렉션에서 선보인 Galliano의 의상으로 전통적인 남성 기모노를 가로로 확대시켜 삼각형과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부피를 형성했다. 원래 기모노의 부피는 직물 아래에 큰 보이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 의상을 겹쳐입어 여러 층의 작은 보이드와 직물로 된 부피를 형성하는데 이 의상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이러한 방식을 과장해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Watanabe의 오리가미 의상 중에는 신체 둘레에 구형을 재현하되 상체와 하체에 별개의 구형을 형성함으로써 허리가 강조된 실루엣을 형성하는 의상들도 존재한다. 유기체의 모양과 코일의 형태를 취한 honeycomb weave는 보이드에 밀도의 감각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매스는 인체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면서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는 성격을 띠고 있다.

5) 스커트 부분

복식사에 나타난 부피확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가느다란 허리를 강조하는 거대한 스커트를 꼽을 수 있는데 현대의 많은 디자이너들도 이전 시대의 복식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면서 거대한 스커트를 선보이고 있다. 스커트의 부피 확장은 주로 크리놀린, 버슬 등의 스커트 버팀대를 이용해 보이드를 형성하는 방법에 의존해왔다. 무거운 매스가 하체에 있으면 동작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복식사를 참조로 디자인을 전개한 Christian Lacroix는 버슬이 있는 뷔스티에(bustier)를 많이 선보였고, 빅토리아 시대의 전통을 역설적으로 수용한 Vivienne Westwood도 버팀대로 부풀린 다양한 형태의 스커트를 선보였다. 시대착오적인 형태를 다양한 언어로 발전시킨 Jean Paul Gaultier는 1998년 S/S 컬렉션에서 버팀대로 양 옆을 부풀리는 18세기 실루엣에 승마복을 접목시킨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부풀린 스커트에 안장주머니를 부착하여 유머러스하게 승마를 언급했다.

그런데, 현대 패션에서 선보이는 부피 확장된 스커트 중에는 이전 시대보다 더욱 과장되어 극단화

된 스타일이 등장하고 있다. Dior 하우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Galliano는 50년대의 Dior처럼 18세기 복식을 재발굴하는 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8년 S/S 컬렉션에서 18세기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의 디테일과 19세기 크리놀린의 실루엣을 결합시켜 선보인 3m폭의 스커트의 부피는 긴 트레인에 의해 더욱 확장되어 18, 19세기의 드레스들보다도 더욱 거대한 부피를 형성했다.

1998년 F/W 컬렉션에서 Yamamoto가 선보인 웨딩드레스는 크리놀린의 절정판으로 둘레가 12m나 되고, 모자는 너무 커서 대나무 막대로 지지되어 네명의 보조를 받아야 무대 위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그림 12> Quinn은 이 거대한 스커트가 패션의 긴 역사에 존재한 보이드의 합계를 상징할 뿐 아니라 시간의 컨테이너(container)를 상징한다고 했다.¹²⁾ 연이어 1999년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웨딩드레스의 크리놀린은 지퍼에 의해 불규칙적인 부분들로 구획되어 모델은 무대 위에서 지퍼를 열고 각각의 부분들에서 슈즈, 넓은 챙의 모자, 부케를 꺼내 착용하는 쇼를 선보였다. 이는 보이드가 의복의 여러 구조를 연결하며 변화하는 것이라는 의복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준다.

한편 Yamamoto가 1995년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파니에는 스커트 밑에서 보이드를 지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밖으로 노출되어 새장과 같은 장식적 효과를 연출했다. 공간에 대한 이러한 해체주의적 접근은 세기 전환점의 패션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했다. 1995년 F/W 컬렉션에서 Kawakubo가 선보인 스커트는 소매달린 재킷의 뒤판과 거대한 툴 스커트의 융합이라는 다다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McQueen이 디자인한 Givenchy의 2000년 S/S 이브닝 가운은 무게감을 갖는 직물 대신 플라스틱이 얽혀진 솜사탕 같은 껌질을 사용해 극도로 가벼운 부피를 형성했다.<그림 13> 형체안정적인 특수 플라스틱 소재는 별도의 버팀대 없이 거대한 공간을 형성했으며, 얽혀지고 구멍난 표면을 통해 복식 내부의 보이드와 외부의 공간은 별도의 공간으로 차단되지 않고 하나로 연장되었다.

거대한 부피의 무게감을 가벼움으로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인 space-age 패션의 공기 주입 의상을 Michiko Koshino는 1990년대로 업데이트시켰다. <그림 14> 공기의 칸막이방 구조로 확대된 스커트의 부피는 중력의 법칙에 대한 해체인 동시에 스커트 버팀대에 의한 보이드가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인데 반해 의복 내부의 공간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Yamamoto도 고무튜브로 부풀린 스커트를 디자인했는데 펌프를 액세서리로 활용해 공기 주입 방식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Noaki Takizawa가 주도한 2001년 S/S Miyake 컬렉션에서도 전통적인 원형 헵라인이 아닌 사각형 헵라인의 부풀린 플라스틱 의상이 선보였다.

한편 Chalayan이 2000년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둥근 테이블 스커트는 테이블 중앙의 일부를 제거하고 위로 당겨 올려 허리에 고정해 아코디언 형

태의 스커트로 변형시킨 것으로 문자 그대로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2000년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Remote Control 드레스는 딱딱한 수지로 만들어져 신체를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으로 정형화하지만, 비행기 날개처럼 열리고 질척 움직이면서 버슬 형태의 확장을 이룬다. 일반적인 X-실루엣 외에 버슬 실루엣도 스커트 확대의 대표적 형태이다. Viktor & Rolf는 1994년 컬렉션에서 19세기말 여성복의 버슬 효과를 18세기 남성복에 결합시킨 의상을 발표함으로써 버슬 형태에 부여되어 있는 성구별의 의미를 해체시켰다. 또한 Thierry Mugler는 1991년 컬렉션에서 르네상스 남성의 트렁크 호즈의 형태와 1950년대 미국 주부의 깡검(gingham) 에이프런을 결합시킨 의상을 선보였는데 패드로 된 매스의 비활동성을 고려해 양쪽 측면에 둥근 패드를 덧붙여 부피를 확대시켰다.

해체의 또 다른 방법으로 Watanabe는 원형의 철사 버팀대를 이용해 허리둘레에 직물을 루프(loop) 형태로 돌려 스커트를 완성했다. 그 결과 버팀대를 이용한 스커트가 일반적으로 원뿔형의 보이드를 형성하는데 반해 편평한 원반형의 형태로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없는 개방된 공간이 형성되었다. 공간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램프 갖의 내부 사진을 촬영해 그 안의 보이드와 각각의 폴리츠에 존재하는 무수한 보이드를 분석하는 등 해체적 시각으로 보이드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한 결과였다. Quinn은 Watanabe의 이러한 의복 공간을 비구조(unconstruction)로의 회귀로 해석하였다.¹³⁾

이상에서 살펴본 현대패션에 나타난 부피 확장의 형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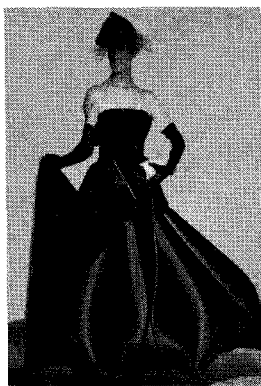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부피 확장의 미적 특성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부피 확장의 형식적 특징

앞 절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 패션의 부피 확장은 매스 보다는 보이드의 형식을 띄는 경우가 많았다. 보이드와 매스의 밀도 차이는 무게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인체에 착용된다는 의복의 특성상 거대한 부피의 복식에는 보이드가 더 적합하기 때



<그림 12> Yamamoto, 1998 <그림 12> Givenchy, 2000



<그림 14> Koshino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부피 확장의 형식

부위	디자이너	확장 형식		형태(form)	
				실루엣	부분 형태
칼라	Watanabe	void/mass	origami (fold)	Y	cylinder
	Watanabe	void/mass	pleats, coil	straight	cylinder
	Chalayan	mass	pad	straight	pyramid
	McQueen	길이연장	high collar	straight	inverted cylinder
소매와 어깨	Viktor & Rolf	void/mass	puff, pad	Y	barrel
	Scott	void	boning, stiff textile	Y	pyramid
	Hishinuma	mass	pad	X	doughnut
몸통	Arkadius	void	boning	Y	irregular form
	Kawakubo	mass	pad	irregular	sausage, tube
	Theyskens	void	fold, stiff textile	Y	open barrel
몸통과 스커트	McQueen	void/mass	feather	tent	cone
	Margiela	void	boning	tent	cone
	Chalayan	void/mass	sculpture of tulle	blob	blob
	Blaise	void	industrial foam	balloon	sphere
	McQueen	void/mass	grass	barrel	dome
	Galliano	void/mass	layering	X	inverted triangle, triangle
	Watanabe	void/mass	orgami	snowman	sphere
스커트	Hishinuma	void	stiff textile	X	dome
	Galliano	void	boning	X	irregular cone
	Yamamoto	void	boning	X	cylinder, cone
	McQueen	void	spun-sugar-like shell	X	cone
	Koshino	void	compartment of air	X	pyramid
	Miyake	void	compartment of air	X	pyramid
	Chalayan	void	accordion of wood	X	cone(accordion)
	Chalayan	void/mass	remote controlled plastic	X, bustle	cone
	Viktor & Rolf	void/mass	stiff textile	bustle	cone
	Mugler	mass	pad	X	half cylinder
	Watanabe	void	loop	X	disk

문일 것이다. 고밀도의 매스는 착용자의 활동성과 본인이 느끼는 무게감의 문제 이외에도 그 복식을 바라보는 감상자에게도 무게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이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거대한 부피도 가볍게 느껴진다. 그런데 Chalayan의 툴 드레스나 Watanabe의 오리가미 드레스는 독특한 구조를 이용해 보이드에 밀도의 감각을 준 매스로 인체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면서 움직임의 허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부위별 부피 확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칼라 부분을 확장하는 복식의 경우 전체적 형태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인 경우가 많았다. 목의 활동성을 위해 주로 보이드 형식이었지만, Chalayan은 목에 패드의

매스를 보여주었다. 소매와 어깨의 부피 형성은 주로 배럴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패드 위에 개더로 공간을 완성한 윗부분과 상부의 부피 지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보이드의 공간을 유지하는 아랫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 타이의 민속의상과 같이 위로 높이 솟은 형태도 있었다. 전통적으로 몸통에는 거대한 부피를 형성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예기치 못했던 부피를 형성하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Arkadius의 건축 골조의 원리와 Theyskens의 거대한 폴드는 보이드를 활용한 것이고, Kawakubo는 패드의 매스를 활용했다.

몸통과 스커트 부분에서는 다른 부위보다 매스가 나타나는 빈도수가 높았다. 허리가 인식되지 않는

형태에서는 몸통과 스커트가 하나로 연결되어 부피를 형성하는데, 텐트 실루엣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 벌룬 실루엣, 도움형이나 거대한 박스형 등이 나타났다. 몸통과 스커트를 동시에 확대하면서도 허리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X-실루엣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X-실루엣이 여성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인 반면에 몸통을 함께 확대한 이 X-실루엣에서는 남성적인 힘이 느껴졌다.

전통적으로 부피확장의 대표적인 예는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거대한 스커트였는데 주로 버팀대를 이용해 보이드를 형성하는 방법에 의존해왔다. 무거운 매스가 하체에 있으면 동작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대 패션에서도 스커트의 과장은 보이드 형식 위주였고 X-실루엣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보이드를 형성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Galliano의 크리놀린, Yamamoto의 웨딩드레스와 같이 X-실루엣이 이전 시대보다 더욱 과장되어 극단화된 특징이 있다. Givenchy에서는 얽혀지고 구멍 난 표면을 통해 내부와 외부가 하나로 연결된 공간을 선보였고, Koshino, Yamamoto, Miyake의 공기 주입 의상은 스커트에서 일반적인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과 달리 의복 내부의 공간을 형성했다. Chalayan의 Remote Control 드레스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에서 버클 실루엣으로 공간의 변화를 창조해 냈다.

전통적인 복식의 부피확장은 인체 구조를 인식하고 가는 허리를 위주로 스커트, 소매 등 각 부위별 부피의 확대로 이루어져 왔다. 현대 패션에서도 전통적으로 확대되던 부위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전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부위를 확대하거나 인체의 형태와 별개의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놀라움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등장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부피 확장의 미적 가치

Kawakubo는 의복의 부피를 물리적인 공간 자체로 파악하는 동시에 은유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응시해야 한다고 했다. 위에서 제시한 극단적인 확대와 놀라움의 유도라는 두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복식의 확장된 부피의 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거대성과 역학적

거대한 부피의 미적 가치는 그리스시대로부터 기원한다. Aristoteles는 예술이 나타내는 미 중에서 '크기'를 가장 중요한 원리로 여겨 엄숙함과 숭고함이 가장 뛰어난 미라고 여겼다.¹⁴⁾ '높이'라는 뜻으로 크기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던 그리스어 'Hypsos'는 후에 "격정적으로 솟아오르는 영혼의 고양"을 의미하게 되면서 숭고미(the sublime)의 어원이 되었다.¹⁵⁾ 18세기에 이르러 Burke는 큰 것의 미적 가치를 숭고미에 연결시켰는데, 무한함, 장엄함의 성질을 갖는 대상은 신체에 신경의 부자연스러운 긴장과 격렬한 정서를 생성하여 환희를 유발한다고 했다.¹⁶⁾ 무한정성과 무형식성을 함께 언급한 Kant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큰 것에 의한 상상력의 위축을 극복한 미적 쾌감을 수학적 숭고미(the mathematical sublime)로 정의하였다.¹⁷⁾

그런데, Oblak은 숭고미가 물리적으로 넓은, 거대한 예술작업 뿐만 아니라 가공할만한 힘을 가진 예술작업에도 적용된다고 했다.¹⁸⁾ 자연의 폭력적인 힘의 미적 가치를 다룬 17세기 영국문학의 영향을 받았던 Burke는 무한함 외에 힘을 숭고미의 대상적 특질로 제시했고, Kant는 강력한 힘의 미적 가치를 역학적 숭고미(the dynamical sublime)로 Schiller는 실천적 숭고미로 설명하였다. 커다란 불꽃은 개인의 확장이라는 느낌을 주며,¹⁹⁾ 넓은 면은 면 자체로서도 의례적이고 위엄 있는 인상을 준다.²⁰⁾ 거대한 복식의 크기는 인간의 신체 크기를 확장하면서 인간에게 위엄성을 부여 한다²¹⁾는 Flügel의 설명처럼, 부피 확장된 복식은 힘과 권위의 미적 가치를 창출한다.

Viktor & Rolf의 검은 드레스에서 거대한 부피의 소매는 모델의 검은색 메이크업과 함께 위축을 유도하는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Galliano의 기모노 스타일의 X-실루엣 드레스에서는 남성적인 힘이 느껴진다. 하중을 명확히 표현하는 형태는 힘과 영원성의 표현을 창출하므로,²²⁾ 매스가 역학을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이드로

이루어진 형태로 힘과 권위를 표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딱딱하고 무게감 있는 재질을 사용했다. Arkadius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 얼굴과 몸통 위에 딱딱한 원뿔형의 거대한 금색 틀을 사용했다.

(2) 해체성과 역사성

앞서 언급했듯이 후기구조주의의 해체, 개조, 비구조 이론은 근본적으로 공간적 개념들이며 공간과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분석적 시각은 건축분야를 넘어 패션에도 채택되고 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보이드와 밀도 있게 채워 있는 매스를 탐구함으로써 복식 형태 분석을 표면을 넘어 공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건축에서의 해체개념이 보이드의 의미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된 것처럼 부피 확장된 패션의 해체성도 매스의 형식 보다는 보이드 형식으로 확장된 패션과 관련 깊게 나타났다.

Derrida의 해체주의는 사물과 언어, 존재와 표상, 중심과 주변 등 로고스 중심적인 서구의 이원론의 입장을 해체하고자했던 것으로, James Laver에 따르면 해체주의 패션은 1980년대 초 일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기조로 하여 1990년대 초 신세대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에 의해 전개되었다.²³⁾ 해체주의 패션의 선구자인 일본 디자이너들의 미학의 세 가지 핵심인 불규칙성(irregularity), 불완전성(imperfection), 비대칭성(asymmetry)은 불확정적 공간 형성에 의한 공간적 경험의 전체성을 파괴했다.²⁴⁾

예기치 못했던 위치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피를 형성하여 놀라움을 유도하는 현대 패션의 특징은 이러한 해체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인체의 형태와 관계없는 새로운 형태의 부피 확장에는 주로 보이드의 방식이 활용되었는데, 특히 Arkadius는 건축 골조의 원리로 보이드를 형성해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부피 과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를 창조했다. Kawakubo는 엉뚱한 모양의 패드로 인체를 왜곡함으로써 매스를 활용한 부피 해체를 이루었다.

해체의 결과로 생기는 의미의 불확정성은 부피 확장된 패션에서 공간의 의미의 불확정성과 복식의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Yamamoto의 지퍼를 열어서 꺼내는 드레스는 보이드가 의복의 여러 구조를 연결하며 변화하는 것이라는 의복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준다. Chalayan은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에서 버슬 실루엣으로 변화하는 드레스를 선보임으로써 복식 형태가 불확정적인 것임을 보여주었고, 나아가 테이블이 스커트로 변화하는 컬렉션을 통해 복식의 형태 뿐 아니라 범주를 문자 그대로 해체시켰다. 그리고 거대한 부피의 무게감을 가벼움으로 변화시킨 Koshino, Yamamoto, Miyake 등의 공기 주입 드레스는 중력의 법칙에 대한 해체이다. Galliano는 “우리는 Dior를 해체했다. 이제 그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건할 때이다. 쿠티르는 무겁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거품 위에 창조했기 때문에 공기처럼 가볍다”²⁵⁾라고 했다.

Yamamoto의 거대한 스커트가 패션의 긴 역사에 존재한 보이드의 합계를 상징할 뿐 아니라 시간의 컨테이너를 상징한다고 한 Quinn의 언급에서 복식 공간의 역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Lacroix, Westwood, Gaultier 등도 이전시대 복식에 대한 언급으로 부풀린 스커트를 활용했다. 특히 Westwood는 유럽 복식의 역사적 양식으로부터 요소를 빌려와 그 원래적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정상적인 지각의 체계를 뒤엎음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했다.²⁶⁾ C. Evans와 M. Thornton은 Westwood의 작품에서는 역사적인 시간과 패션의 시간에 대한 임의적이고 급변하는 감각이 뒤엉켜 혼동된 상태로 나타나는데, 역설적이게도 ‘무질서를 둘러싼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²⁷⁾

(3) 회극성과 울동성

Gaultier는 양 옆을 부풀린 18세기 실루엣의 드레스에 안장주머니를 부착함으로써 역사적 언급을 넘어 유머러스하게 승마를 언급했다. 스커트 밑에서 보이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노출된 Yamamoto의 파니에는 새장과 같은 효과로 연출함과 동시에 웃음을 자아내는 역할을 한다. 골게 또는 회극적 미는 기대한 것과는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느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유희적 태도에 의해서 극복되면서 느껴지는 미적 쾌감

이며, 형태의 이상성, 착오적인 행동이나 동작 등이 그 대상적 특성이다.²⁸⁾ 김민자는 유방과 엉덩이만을 과장되게 부풀린 의상이나 복부에 패드를 대어 부풀린 웨딩드레스 등을 희극적인 복식미로 파악했다.²⁹⁾

Watanabe의 오리가미 드레스는 그 확장된 부피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소재와 폴드 사이의 많은 보이드로 인해 가볍게 물결치는 울동성을 느끼게 한다. Kawakubo의 패드 드레스는 나선으로 도는 회전에 천을 씌운 듯한 인상으로 동작을 강조한다. Hogarth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파상적 곡선운동을 우아미의 대상적 특성으로 보고, 움직이지 않는 대상일지라도 선적 가상(linear semblance)으로 우아한 동태를 느끼게 한다고 했다.³⁰⁾ 우아는 감성적 측면이 표현된 외면적 운동에 중점을 둔 범주이며, Schiller는 이러한 우아가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이나 야유와 결합하기 쉽다고 했다.³¹⁾

또한 현대 패션의 부피확장과 테크놀로지 사회로서의 현대 상황과의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자동차 내부 디자인과 인간공학적 설계를 참조로 한 Chalayan의 드레스에 대해 Evans는 이 의상이 속도에 대한 신체의 자연적인 가능성과 기술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리고 Chalayan의 Remote Control 드레스는 테크놀로지화된 오브젝트이자 인간과 기계의 혼성으로, 테크놀로지 시스템으로의 통합이 몸과 기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낸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³²⁾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패션쇼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거대한 부피의 복식들의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복식에 표현된 거대한 부피의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루엣과 부위별 형태 이외에 공간개념을 도입한 결과 복식의 표면을 넘어 내부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보이드와 매스를 제시할 수 있었다. 공간의 밀도 문제로서의 보이드는 밀도가 낮은 희박한 공간을 의미하며, 매스는 솔리드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밀도가 높은 뻣뻣한 공간을 의미한다. 확장된 복식에서 보이드는 버팀대나 형태안정성 소재 또는 공기를 주입 등의 방식으로 형성되고, 매스는 패드 등으로 이루어진다. 직물의 레이어드나 폴드, 플리츠, 트위스트 등은 보이드와

<표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부피 확장의 미적 특성

외적 형식	내적의미			
	미적 가치	미적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id : bonning, stiff textile, air - void/mass : layering, origami, fold, puff, feather - mass: pad · 확장된 복식의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실루엣 : 스커트 확장 - tent, blob: 몸통과 스커트 확장 - Y-실루엣 : 소매와 어깨 확장 - 스트레이트 실루엣 : 어깨 확장 · 확장 부위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e : 스커트, 몸통과 스커트 - pyramid : 스커트, 칼라와 어깨 - sphere, dome : 몸통과 스커트 - barrel : 소매, 몸통 - irregular form 	· 거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적인 형태 - 무한정성, 무형식성 	승고미	
	· 역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힘, 남성적 힘 - 의례성, 위엄 - 종교적 권위 		
	· 해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외성, 인체의 왜곡 - 불확정성: 형태의 변화, 범주의 변화 - 중력법칙의 해체 		
		·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축적 - 역사적 양식의 재창조 	폼계미
		· 희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의 이상성 - 유희적 태도 	
		· 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id의 울동미 - 선적 가상 	
	· 테크놀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공학적 설계 - 테크놀로지화된 오브제 	인공미	

매스의 성격을 함께 갖는 공간을 형성한다.

1990년대 이후 패션쇼에 등장한 부피 확장된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부피 확장은 그 무게감으로 인해 매스 보다는 보이드의 형식을 띄는 경우가 많았다. 복식의 무게감은 착용자가 느끼는 물리적 하중의 불편함 뿐 아니라 감상자에게 느껴지는 불편함과도 관련된다. Chalayan, Watanabe, McQueen 등은 보이드와 매스의 성격을 잘 결합하여 거대한 부피이면서도 가볍고 울동적으로 느껴지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부피 확장과 같이 가는 허리를 위주로 스커트, 소매 등 각 부위별 부피의 확대가 많이 나타났는데, 특징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부위를 확대하거나 인체의 형태와 별개의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등장했다.

부위별 부피 확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부위의 확장에 보이드의 형식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몸통과 스커트를 함께 확장한 경우에는 다른 부위보다 매스가 나타나는 빈도수가 높았다. 부피 확장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부위는 복식사의 전례와 같이 스커트 부분이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보이드를 형성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X-실루엣이 이전 시대보다 더욱 과장되어 극단화된 특징이 있었다. Yamamoto, Miyake 등의 공기 주입 의상은 스커트에서 일반적인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과 달리 의복 내부의 공간을 형성했으며, 거대 부피에 떠오를 것 같은 가벼움의 특성을 부여했다.

부피 확장된 복식들의 내적의미를 분석한 결과 거대성, 역학적성, 해체성, 역사성, 희극성, 울동성, 테크놀로지라는 미적 가치를 추출할 수 있었다. 극단적으로 넓고 높고 거대한 복식의 거대성은 상상력의 위축을 극복하는 미적 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거대한 복식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위엄과 힘의 차원을 역학적성으로 분류하였다. 해체성은 예상치 못한 부위를 확대함으로써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의성과 확장된 복식의 형태나 복식의 개념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불확정성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었고, 역사성은 확장된 부피를 시간의 축적으로 은유하거나 역사적 양식들을 재창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외에 보이드의 부피가 갖는 울동성과 테크놀로지화된 오브제로서의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미적 가치들은 숭고미, 골계미, 우아미, 인공미의 미적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현대 포스트모던 패션의 특성을 반영하듯 숭고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피 확장된 현대 패션 작품들의 부피를 공간 개념을 도입해 분석한 결과 부피의 공간적 분석은 표면적 형태를 넘어 구조적인 탐구로 내적 의미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방법이었다. 연구 과정에서 부피 확장에 의미를 부여하며 특징적인 부피를 형성하는 작가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작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보이드와 매스를 적용해 복식의 공간형성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패션디자인 창작 기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Koda, H. (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p. 10-12.
- 2) 장애란 (1993). Balenciaga의 작품에 나타난 건축적인 형태미에 관한 연구. *복식*, 21, pp. 5-18.
- 3) Davis, M. V. (1980).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 58.
- 4) Joedicke, J. (1999). 건축의 공간과 형태. 윤재의, 지연순(역). 서울: 세진사. pp. 26-27.
- 5) 위의 책, pp. 19-22.
- 6) Quinn, B. (2003). *The Fashion of Architecture*. Oxford: Berg, p. 63.
- 7) 위의 책, pp. 215-217.
- 8) 위의 책, pp. 219-223.
- 9) Evans, C. (2003). *Fashion at the edge: Spectacle, modernity and deathlines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pp. 270-275.
- 10) Koda, H. 앞의 책, p. 113
- 11) blob: 걸쭉한 액체 한 방울. 미술에서는 덩어리로 해석되고 있다.
- 12) Quinn, B. 앞의 책, p. 83.
- 13) 위의 책, pp. 83-84, 220-223.
- 14) 다케우찌 도시오 (1974). *미학 예술학 사전*. 안영길 외 옮김. (1990). 서울: 미진사. pp. 26-27.
- 15) 안성찬 (2000). 숭고의 미학: 그 기원과 개념사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21.
- 16) 윤미숙 (1991). E. Burke의 崇高와 美의 分析에 關한 研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23-30.

- 17) 안성찬. 앞의 책, pp. 95-97.
- 18) Oblak, M. (1995). *Kant and Malevich: The Possibility of Sublime*. Art & Design, May 1995, p. 41.
- 19) 김수현 외 1인 (1992). 건축실계 의장론. 서울: 도서출판 국제. pp. 276-277.
- 20) 조규화 (1989).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 119.
- 21) Flügel, J.C. (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Hogarth Press. pp. 46-48.
- 22) 장애란. 앞의 책. p. 8.
- 23) Laver, J. (1986). *Costume & Fashion: A Concise History*. New York: Thames and Hudson. pp. 281-283.
- 24) Steele, V. (1991). *Women of Fashion*. New York: Rizzoli. p. 186.
- 25) *Vogue Korea*. 2002년 9월. p. 186.
- 26) Ash, J. & Wilson, E. (1992). *Chic Thrills: A Fashion Reader*. London: Pandora Press. p. 172.
- 27) Evans, C. & Thornton, M. (1989). *Women & Fashion*. London: Quartebooks Ltd. p. 147, pp. 152-154.
- 28) 다계우찌 도시오. 앞의 책. pp. 278-280.
- 29)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1. 서울: 교문사, pp. 215-217.
- 30) 백기수 (1992). 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78.
- 31) 다계우찌 도시오. 앞의 책, p. 275.
- 32) Quinn, B. (2002). A Note: Hussein Chalayan, Fashion and Technology. *Fashion Theory*, 6(4), pp. 359-368.